

경기 부양책에 中 ETF 강세... 개인-外人 '엇갈린 투심'

中 ETF 수익률, 최대 131.21% 기록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증시 급상승
개인투자자 '매도세' 外人 '매수세'
증권가 "단기 반등 모멘텀 지속 전망"

지난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일부 상품은 100% 대까지 반등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투자 양상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중국ETF 순매도세를 보이는 데 반해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7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중국 관련 ETF가 수익률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향생테크레버리지(합성 H)로 131.21%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중국 빅테크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향생테크 지수를 2배 추종한다. 이어 TIGER 차이나전기차레버리지(합성)이 100%의 수익률을 보여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TIGER차이나CSI300레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ETF 이미지.

리지(합성)(99.21%), KOSEF차이나A50커넥트레버리지MSCI(합성H)(91.04%), KODEX차이나심천ChiNext(합성)(90.61%), KODEX차이나H레버리지(H)(85.76%), TIGER 차이나향생테크(56.71%) 등이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같이 중국 관련 ETF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중국 증시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지난달 24일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 시작 직전인 30일까지 25%가량 뛰었다. 상하이 종합지수도 21%가량 급등했다. 홍콩 항셱지수도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

까지 2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중국 관련 ETF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개인은 최근 한달간 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와 TIGER 차이나향생테크 등을 각각 715억원, 366억원어치 팔아치웠다. 또한 KODEX차이나H레버리지(H)(179억원), TIGER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137억원) 등을 순매도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TIGER차이나전기차SOLACTIVE를 726억원 순매수해 가장 많이 담았고, 다음으로 TIGER 차이나향생테크를 27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TIGER차이나CSI300레버리지(합성)(103억원), KODEX차이나향생테크(88억원) 등도 사들였다.

증권가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로 인해 단기 수급과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중국 증시 반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 반등 모멘텀은 10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적으로는 수급과 투자심리가 지배하고, 중기적으로 펀더멘털 확인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중화권 증시가 10~15%대 상승 여력을 측정할 수 있지만, 단기 수급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열어두고 일부 조정 시 매집 전략을 추천한다"며 "국내 중국 관련주의 경우 중국 증시 단기 반등과 부양책이 실제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되려면 3~6개월 경기가 격 신호 등락과 함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지난달 말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50bp 낮춰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약 189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도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인하토록 권고했다. 또한 증시안정책도 발표했다.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3000억위안 규모의 특별 재대출 제도가 시행됐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증권사 '방긋'... 불안정성은 '여전'

민주당 의총서 유예·폐지 목소리
금투세 시스템 구축에 423억 투자
"매물비용 고려해도 호재인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이후에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뱀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투세 도

입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내 토론회 후 열린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보완 후 시행'이나 '시행 후 보완' 주장보다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시행 유예'를 주장한 만큼 '유예' 쪽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로 발생하는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

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게 돼있다. 이번에도 유예 되면 금투세는 2023년 이후 또 한 번 더 유예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유예만으로도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금투세 도입 시 받게 될 시장의 충격에 비하면 들인 비용도 아깝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의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423억원에 달한다.

리테일 규모가 큰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유예라도 당장에 빠져나가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을 잡을 수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될 거라고 가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관련 인력들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타격이 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증권업계에는 호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금투세 유예 자체는 잠정적인 보수비용도 아끼는 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도

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더욱 안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는 시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내국인 투자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어야 외국인도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유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가 '폐지'가 아니므로, 여전히 증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유예 결정만으로도 증권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미래에셋증권, 'AI 마켓 어시스턴트'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기반 분석 리포트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전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시간 주가정보, 뉴스 등을 기반으로 종목분석을 수행하는 'AI 마켓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실시간 주가정보를 기반으로 모멘텀, 변동성 등 다양한 기술적 지표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종목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임직원 누구나 사내 인프라에 구축된 'AI 마켓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관심 종목 실시간 모니터링과 특정 시점에 원하는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9월에 전사 직원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업무 어시스턴트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어시스턴트 플랫폼을 사내 오픈한 바 있다.

AI 어시스턴트 플랫폼이 사내 지식 DB기반으로 다양한 지식 검색 및 답변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이번에 오픈한 'AI마켓 어시스턴트'는 종목 체결 정보, 뉴스 등 다양한 실시간 금융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정보에 대한 인사

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가 지식 DB와 실시간 마켓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부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향후 다양한 AI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이 AI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보안환경 구축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금융당국이 이르면 연내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허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엄격한 보안 요건을 갖춘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마켓 어시스턴트'도 앞서 오픈한 업무 어시스턴트와 동일하게 보안 요건을 갖춘 내부망 구축형 LLM 기반으로 구성됐다.

/허정윤 기자

서유석, 아일랜드서 펀드산업 성장전략 논의

(금투협회장)

제37차 IIFA 연차총회 참석

금융투자협회는 서유석 협회장(사진)이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제37차 국제자산운용협회(IIF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서유석 회장은 국내외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각국 자산운용협회 수장 및 업계관계자들과 다양한 회의를 통해 펀드산업의 위기 대응 방안 및 공조,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IFA는 아시아, 북중남미, 유럽,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39개국 41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자산운용협회 대표단체다. 1987년 창립 이래 회원국 간 이해증진, 펀드관련 정책공조 및 정보공유, 국제기구에 업계 의견 대변 등 글로벌 펀



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주요국 펀드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주

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글로벌 펀드 규제 동향, 지속 가능성과 책임 투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계획돼 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의뿐만 아니라, 차기 이사회 및 사무국 선출, 주요 워킹 그룹 위원회 구성 등 국제자산운용협회 운영을 위한 주요 사안들에 대한 투표도 진행된다. /원관희 기자